

중국의 한국어 듣기 교재 제시대화문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 부사의 쓰임을 중심으로

노 성 화*

[국문초록]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들은 부사의 사용에서 한국어 준구어와 일부 차이를 보인다. 연구자는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한국어 준구어 말뭉치와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 말뭉치에 대해 통계학에서의 구간 추정 방법과 가설 검정법을 도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위의 두 말뭉치에서 출현한 부사를 통사론적 특성에 따라 문장부사와 성분부사로 나누고 다시 의미론적 특성에 따라 문장부사는 서법부사와 접속부사로, 성분부사는 시간부사, 장소부사, 양태부사, 정도부사, 상징부사, 부정부사로 나누어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 연구자는 이들 부사를 다시 그 어원적 특성에 따라 고유어 계통, 한자어 계통, “고유어+한자어/한자어+고유어” 계통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교 결과 부사의 통사-의미론적 범주별 사용 측면에서

*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 조선어학부 부교수·중국 낙양외국어학원 박사
후연구원

문장부사 중의 서법부사, 성분부사 중의 장소부사, 상징부사, 부정부사는 모든 교재 또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그 출현율이 신뢰하한에 미치지 못하였고 문장부사 중의 접속부사, 성분부사 중의 시간부사, 양태부사는 모든 교재 또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그 출현율이 신뢰상한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부사의 어원적 범주별 사용에서는 뚜렷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자어 계통의 부사의 사용에서 한국어 교재들의 사용률이 약간 높은 반면 “고유어+한자어/한자어+고유어” 계통의 부사의 사용에서는 한국어 듣기 교재들의 사용률이 약간 낮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향후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 집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향후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에서는 문장부사 중의 서법부사, 성분부사 중의 장소부사, 상징부사, 부정부사는 그 사용률을 증가해야 하고 문장부사 중의 접속부사, 성분부사 중의 시간부사, 양태부사는 그 사용률을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한자어 계통의 부사의 사용은 좀 줄이고 “고유어+한자어/한자어+고유어” 계통의 부사의 사용은 약간 늘릴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부사의 사용에서도 일부 주의가 필요하다.

1. 서론

언어 입력의 중요한 원천인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은 듣기 교육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듣기 자료는 듣기 과정 중의 기타 요소들, 예를 들어 난이도, 학습 전략 및 듣기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재 편집 시 적합한 제시대화문을 선별하는 일은 듣기 교육과 듣기 학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¹⁾ 따라서 한국어 듣기 교육에서 이처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제시대화문들에 대한 연구가 마땅히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되어야 하지만,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

1) 刘龙根·苗瑞琴(2011), 『外語聽力理論與實踐』,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p. 70.

문에 대한 연구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자는 이런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에 대해 통계학에서의 구간 추정 방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별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먼저 노성화(2012)에서 제시대화문의 실질형태소 범주별 사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시 노성화·왕전초·양취평(2013)에서 제시대화문의 대명사 사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노성화(2015a), 노성화(2015b)에서는 제시대화문의 수사 사용과 의존명사 사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에 이어 이번에는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에서 출현한 부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노성화(2012)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사의 사용에서 한국어 준구어²⁾와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은 일부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부사의 경우 총 8종의 교재에서 4종의 교재가 그 사용률이 신뢰하한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접속부사의 경우 모든 교재가 신뢰상한을 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접속부사의 경우 일부 교재들은 그 사용률이 준구어의 3배 가까이 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먼저 손남익³⁾의 논의를 참고하여 부사를 통사론적 특성에 따라 문장부사와 성분부사로 나누고 다시 의미론적 특성에 따라 문장부사는 서법부사와 접속부사 2가지로, 성분부사는 시간부사, 장소부사, 양태부사, 정도부사, 상징부사, 부정부사 6가지로 나누어 한국어 준구어와 한국어 듣기 교재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 다음 연구자는 이들 부사를 그 어원적 특징에

2) 서상규·구현정(2002) p. 14에서는 전달 매체에 따라 언어를 구어(일상대화, 전화 대화, 상담, 인터뷰 등), 문어적 특징을 지닌 구어(강연, 연설, 발표 등), 구어적 특징을 지닌 문어(희곡, 시나리오, 대본, 소설의 대화 등), 문어(수필, 소설, 학술서적, 교과서 등) 등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강범모(2003), p. 28, 이상억(2006), p. 14에서는 이중 영화와 드라마 대본을 준구어라는 범주에 포함시켰다.

3) 손남익(1995), 『국어부사연구』, 서울: 박이정출판사, pp. 68-160.

따라 다시 고유어 계통, 한자어 계통, “고유어+한자어/한자어+고유어” 계통 3가지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이상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어 듣기 교재 집필 시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2. 연구 과제와 재료 및 연구방법

2.1. 연구 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통계학에서의 신뢰구간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한국어 준구어는 부사의 범주별 사용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둘째, 한국어 듣기 교재 제시대화문에서 출현하는 부사의 범주별 사용을 위의 신뢰구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이러한 차이는 향후 한국어 듣기 교재 집필에 어떤 점들을 시사해주는가?

2.2. 연구 재료와 연구방법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2개의 말뭉치⁴⁾를 사용하였는데, 먼저 한국어 준구어의 언어학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노성화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⁵⁾

4) 이들 말뭉치의 목록은 [참고문헌]의 [자료] 부분에서 상세히 제시하였다.

5) 연구자가 구축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는 모두 6개인데 첫 번째는 준구어 말뭉치, 두 번째는 예능프로 말뭉치, 세 번째는 TV토론 말뭉치, 네 번째는 뉴스 말뭉치, 다섯 번째는 한국어 학습자 음성 말뭉치, 여섯 번째는 한국어 교재 말뭉치이다. 이 중 한국어 교재 말뭉치는 다시 한국 국내에서 출판된 것과 중국 국내에서 출판된 것으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첫 번째 말뭉치와 여섯 번째 말뭉치를

-한국어 준구어 음성 전사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이 말뭉치는 모두 31편의 한국 영화와 4편의 한국 드라마(5집/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1,327어절이다.⁶⁾ 그 다음 연구자는 한국어 듣기 교재들의 언어학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노성화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6-한국어 교재 말뭉치2-중국 국내 한국어 듣기 교재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이 말뭉치는 중국 국내에서 출판한 한국어 듣기 교재 8종 25책 안의 제시대화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51,678어절이다.⁷⁾ 이상의 말뭉치들은 모두 연구자가 직접 들으면서 전사한 '음성 전사 말뭉치'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정량 분석 방법과 정성 분석 방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정량 분석 방법으로는 통계학에서의 모수 추정과 가설 검정법을 사용하였다. 모수 추정은 표본의 통계 수치를 이용해 모 집단의 수치를 추정하는 통계학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모수 추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점 추정이고 다른 하나는 구간 추정이다. 점 추정은 표본의 평균치로써 모 집단의 평균치를 추정하고, 표본의 분산으로써 모 집단의 분산을 추정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구어에 관한 연구⁸⁾나 한국어 교재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통계학에서의 점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언어학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점 추정 방법은 대부분 표본의 추출이 무작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본의 통계치로써 계산된 점 추정은 모 집단의 실제 수치와 다른 경우가 많아 추론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 구축되고 있는 기타 말뭉치들과 구별하기 위해 말뭉치 제목에 연구자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 6) 본 말뭉치는 1,100여 개의 상황에서 600여 명의 남성과 360여 명의 여성이 대화를 진행하였으며 이들의 직업도 230여 종에 달한다. 그리고 대화자들은 학령 전 아동에서부터 70세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되어 있다.
- 7) 본 말뭉치는 듣기 교재 내의 대화문들만 선정하였는데 여기에는 본문에서 제시한 대화문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연습문제에서 제시한 대화문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중 본문에서 제시한 대화문들이 절대 대부분을 차지한다.
- 8) 노성화(2014), 『한국어 준구어 형태론적 연구』, 서울: 박이정출판사; 서상규·구현정(2005), 『한국어 구어 연구(2)』, 서울: 한국문화사.

의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 하지만 점 추정에 비해 구간 추정은 표본에 대한 계산을 통해 최소치와 최대치 사이의 구간을 추정의 구간으로 정하기 때문에 점 추정의 위와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⁹⁾ 가설 검정법은 구간 추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설 검정법은 구간 추정 중의 신뢰구간의 또 다른 표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뢰 구간 추정 기술로써 가설 검정을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뢰 구간은 일정한 확률 하에서 표본 자료에 대한 계산을 통해 모 집단의 수치가 가능하게 존재하는 범위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때 모 집단에 대한 가설은 신뢰 구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신뢰 구간 밖에 있을 수도 있다. 신뢰 구간 밖에 있을 경우 유의도가 높아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 반면, 신뢰 구간 안에 있을 경우 유의도가 높지 않아 가설이 성립된다.¹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구간이라는 새로운 정량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먼저 한국어 준구어에서의 부사의 범주별 사용 특징을 밝힌 다음, 다시 가설 검정법을 사용해 한국어 듣기 교재 내 부사의 범주별 사용 특징을 한국어 준구어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위의 정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듣기 교재 집필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제언하였다.

3. 한국어 준구어에서 부사의 범주별 사용 특징

3.1. 부사의 통사-의미적 범주별 사용 특징

총 221, 327어절의 준구어 말뭉치에서 출현한 부사는 모두 819개인데 총 27, 304회 출현해 평균 33.34회 중복 출현하였다. 이들 부사를 범주별로

9) 韩宝成(2009), 『外語教學科研中的統計方法』,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pp. 50-52.

10) 韩兆洲(2011), 『统计学原理(第七版)』, 广州: 暨南大学出版社, p. 155.

그 출현율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¹⁾

[표 1] 한국어 준구어에서 출현한 부사의 통사-의미적 분류

통사적 분류	의미적 분류	부사
문장 부사	서법 부사	왜(4.3%), 혹시(或是)(0.42%), 제발(0.34%), 도대체(都大體)(0.33%), 사실(事實)(0.3%), 아무튼(0.28%), 절대(絕對)(0.22%), 어차피(於此彼)(0.19%), 별로(別—)(0.16%), 하여튼(何如—)(0.15%), 아무래도(0.14%), 역시(亦是)(0.13%), 물론(勿論)(0.11%), 아마(0.11%), 어쨌든(0.11%), 어쩌면(0.11%), 분명히(分明—)(0.1%), 결국(結局)(0.09%), 그나저나(0.09%), 대체(大體)(0.09%), 차라리(0.09%), 아예(0.08%), 설마(0.08%), 분명(分明)(0.07%), 절대로(絕對—)(0.07%), 도저히(到底—)(0.07%), 전혀(全—)(0.06%), 만약(萬若)(0.05%), 어쩐지(0.05%), 특히(特—)(0.05%), 과연(果然)(0.04%), 실은(實—)(0.04%), 적어도(0.03%), 통(0.03%), 하여간(何如間)(0.03%), 게다가(0.03%), 어쨌(0.03%), 실제로(實際—)(0.02%), 또한(0.02%), 심지어(甚至於)(0.02%), 어쨌거나(0.01%), 행여(幸—)(0.01%), 고로(故—)(0.01%), 미처(0.01%), 보나마나(0.01%), 비록(0.01%), 좀처럼(0.01%), 하마터면(0.01%), 하여튼간(何如一間)(0.01%), 결코(決—)(0.01%).
	접속 부사	그런데(2.32%), 그럼(1.87%), 그리고(1.07%), 그러니까(0.84%), 그래서(0.64%), 그래도(0.52%), 그러면(0.23%), 하지만(0.17%), 그러게(0.1%), 하긴(0.09%), 그렇지만(0.05%), 그래(0.04%), 그러나(0.04%), 그러다(0.03%), 밋(0.02%), 즉(卽)(0.02%), 혹은(或—)(0.02%), 왜냐하면(0.02%), 그래야(0.01%), 그러다가(0.01%), 그러면서(0.01%), 오히려(0.01%), 그러니(0.01%), 또는(0.01%), 한편(一便)(0.01%), 그리하여(0.01%), 그러더니, 그러자, 다만, 단(但), 더구나, 하기는, 하기와, 현대.
성분 부사	시간 부사	지금(至今)(3.22%), 오늘(1.6%), 이제(1.31%), 잠깐(1.21%), 아직(0.72%), 먼저(0.51%), 아까(0.44%), 언제(0.37%), 막(0.36%), 내일(來日)(0.33%), 갑자기(0.31%), 어서(0.3%), 벌써(0.28%), 금방(今方)(0.27%), 어제(0.25%), 잠시(暫時)(0.22%), 당장(當場)(0.22%), 얼른(0.18%), 인제(0.17%), 평생(平生)(0.15%), 곧(0.13%), 일찍(0.13%), 현재(現在)(0.11%), 오래(0.1%), 이미(0.1%), 미리(0.1%), 이따(0.1%), 방금(方今)(0.09%),

11) 한국어 준구어 말뭉치에서는 모두 66개의 서법부사, 85개의 시간부사, 314개의 양태부사, 86개의 정도부사, 218개의 상징부사가 출현하였는데 지면의 제한으로 여기서는 앞 50개만 제시하기로 한다.

통사적 분류	의미적 분류	부사
		요새(0.09%), 늘(0.07%), 이따가(0.06%), 드디어(0.05%), 당분간(當分間)(0.05%), 언제나(0.05%), 진작(0.04%), 진작에(0.04%), 우선(于先)(0.03%), 언젠가(0.03%), 조만간(早晩間)(0.03%), 어저께(0.03%), 이제야(0.03%), 간단에(0.02%), 끝내(0.02%), 곧바로(0.02%), 마침(0.02%), 시방(時方)(0.02%), 한창(0.02%), 모레(0.01%), 여태(0.01%), 오래오래(0.01%).
	장소 부사	여기(2.09%), 거기(0.57%), 이리로(0.47%), 저기(0.32%), 이리(0.31%), 저리(0.12%), 요기(0.05%), 가까이(0.03%), 그리로(0.02%), 그리(0.02%), 여기저기(0.01%), 저리로(0.01%), 구석구석(0.01%).
	양태 부사	잘(3.34%), 다(3.33%), 그냥(2.21%), 빨리(1.97%), 어떻게(1.86%), 이렇게(1.72%), 그렇게(1.7%), 또(1.55%), 많이(1.41%), 다시(1.1%), 한 번(一番)(0.9%), 같이(0.85%), 꼭(0.75%), 그만(0.73%), 얼마나(0.57%), 자꾸(0.46%), 바로(0.43%), 만날(萬一)(0.37%), 제대로(0.31%), 일단(一旦)(0.3%), 없이(0.29%), 조용히(0.29%), 함께(0.29%), 계속(繼續)(0.26%), 열심히(熱心一)(0.26%), 똑바로(0.22%), 안녕히(安寧一)(0.21%), 아무리(0.19%), 직접(直接)(0.19%), 서로(0.16%), 자주(0.16%), 새로(0.15%), 솔직히(率直一)(0.15%), 잘못(0.15%), 가끔(0.13%), 모두(0.13%), 괜히(0.13%), 이만(0.11%), 항상(恒常)(0.11%), 그대로(0.1%), 전부(全部)(0.1%), 가만히(0.1%), 무조건(無條件)(0.1%), 당연히(當然一)(0.1%), 저렇게(0.1%), 천천히(0.1%), 영원히(永遠一)(0.09%), 따로(0.09%), 좀더(0.09%), 마음대로(0.08%).
	정도 부사	좀(5.4%), 진짜(眞一)(2.58%), 더(1.72%), 정말(正一)(1.62%), 너무(1.31%), 아주(0.84%), 참(0.63%), 조금(0.36%), 제일(第一)(0.31%), 원래(原來)(0.3%), 되게(0.27%), 완전(完全)(0.21%), 가장(0.16%), 완전히(完全一)(0.15%), 진짜로(眞一)(0.15%), 무지(無智)(0.12%), 더 이상(一以上)(0.1%), 굉장히(宏壯一)(0.08%), 훨씬(0.08%), 꽤(0.08%), 정말로(正一)(0.08%), 확실히(確實一)(0.07%), 겨우(0.07%), 쫓나 게(0.07%), 점점(漸漸)(0.07%), 너무나(0.06%), 너무나너무(0.06%), 엄청(0.06%), 덜(0.05%), 하도(0.05%), 상당히(相當一)(0.05%), 워낙(0.05%), 웬지(0.03%), 열라(0.03%), 줄라(0.03%), 오죽(0.03%), 쫓나(0.03%), 꽤나(0.02%), 더욱(0.02%), 영(永)(0.02%), 워낙에(0.02%), 참말로(0.02%), 가뜩이나(0.01%), 대뻥(0.01%), 매우(0.01%), 여전히(如前一)(0.01%), 쫓같이(0.01%), 대단히(0.01%), 무척(0.01%), 이래저래(0.01%).
	상징 부사	딱(0.46%), 확(0.29%), 짝(0.1%), 쪽(0.08%), 살살(0.07%), 깜짝(0.06%), 깜빡(0.05%), 푹(0.05%), 꼼짝(0.05%), 짹(0.04%), 뚝(0.04%), 뚱뚱

통사적 분류	의미적 분류	부사
		(0.04%), 팍(0.04%), 콩콩콩(0.03%), 바작(0.03%), 팍팍(0.03%), 꼬박 꼬박(0.02%), 싹(0.02%), 구질구질(0.02%), 또박또박(0.02%), 빵(0.01%), 뻐(0.01%), 쑥(0.01%), 지긋지긋(0.01%), 질질(0.01%), 쪽쪽(0.01%), 툅(0.01%), 퍼퓍(0.01%), 화끈(0.01%), 킁킁(0.01%), 툅(0.01%), 띠(0.01%), 번쩍(0.01%), 벌떡(0.01%), 빵빵(0.01%), 슬슬(0.01%), 척(0.01%), 콧(0.01%), 툅(0.01%), 펄펄(0.01%), 푹삭(0.01%), 호락호락(0.01%), 활짝(0.01%), 후딱(0.01%), 꼼꼼이(0.01%), 길길이(0.01%), 꼬박(0.01%), 꼼꼼(0.01%), 팍팍(0.01%), 꺽(0.01%).
	부정 부사	안(8.01%), 못(2.39%), 아니.

연구자는 준구어에서 출현한 부사의 통사-의미적 범주별 사용 특징을 밝히고자 31편의 영화와 4편의 드라마에서의 각 범주별 출현율을 토대로 95%의 신뢰수준(유의수준 $\alpha=0.05$)에서 각 범주들의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먼저 표준편차를 구할 때 Z-검정법($s = \sqrt{\frac{\sum_{i=1}^n (x_i - \bar{x})^2}{n}}$)을 사용하였으며 Excel(2010) 중의 CONFIDENCE.NORM 함수와 표본 평균치를 이용해 신뢰상한과 신뢰하한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신뢰구간은 '상한-하한'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서법부사의 경우, 신뢰상한은 9.45%이고 신뢰하한은 8.33%인데 그 신뢰구간은 '9.45-8.33'으로 표시하였다. 이들 각각의 수치들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어 준구어에서 부사의 통사-의미적 범주별 출현율의 신뢰구간

범주		α	표준편차	표본수 (n)	함수CONFIDENCE.E. NORM의 계산결과 (%)	표본 평균치 (%)	신뢰구간 (%)
문장	서법	0.05	0.01682	35	0.56	8.89	9.45-8.33
	접속		0.018583		0.62	8.10	8.71-7.48
성분	시간		0.028178		0.93	14.11	15.04-13.17
	장소		0.017411		0.58	4.17	4.75-3.60
	양태	0.035999	1.19	33.94	35.14-32.75		

범주		α	표준편차	표본수 (n)	합수CONFIDENC E. NORM의 계산결과 (%)	표본 평균치 (%)	신뢰구간 (%)
	정도		0.021837		0.72	17.48	18.20-16.76
	상징		0.007892		0.26	2.68	2.94-2.42
	부정		0.022254		0.74	10.63	11.36-8.89

3.2. 부사의 어원적 범주별 사용 특징

위의 819개의 부사를 다시 어원적으로 고유어 계통, 한자어 계통, “고유어+한자어/한자어+고유어” 계통으로 나누고 그 출현율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²⁾

[표 3] 한국어 준구어에서 출현한 부사의 어원적 분류

어원적 분류	부사
고유어 계통	안(8.01%), 좀(5.4%), 왜(4.3%), 잘(3.34%), 다(3.33%), 못(2.39%), 그런데(2.32%), 그냥(2.21%), 여기(2.09%), 빨리(1.97%), 그림(1.87%), 어떻게(1.86%), 이렇게(1.72%), 더(1.72%), 그렇게(1.7%), 오늘(1.6%), 또(1.55%), 많이(1.41%), 이제(1.31%), 너무(1.31%), 잠깐(1.21%), 다시(1.1%), 그리고(1.07%), 같이(0.85%), 아주(0.84%), 그러니까(0.84%), 꼭(0.75%), 그만(0.73%), 아직(0.72%), 그래서(0.64%), 참(0.63%), 거기(0.57%), 얼마나(0.57%), 그래도(0.52%), 먼저(0.51%), 이리로(0.47%), 딱(0.46%), 자꾸(0.46%), 아까(0.44%), 바로(0.43%), 언제(0.37%), 조금(0.36%), 막(0.36%), 제발(0.34%), 저기(0.32%), 갑자기(0.31%), 이리(0.31%), 제대로(0.31%), 어서(0.3%), 없이(0.29%).
한자어 계통	지금(至今)(3.22%), 혹시(或是)(0.42%), 내일(來日)(0.33%), 도대체(都大體)(0.33%), 제일(第一)(0.31%), 사실(事實)(0.3%), 원래(原來)(0.3%), 일단(一旦)(0.3%), 금방(今方)(0.27%), 계속(繼續)(0.26%), 잠시(暫時)(0.22%), 당장(當場)(0.22%), 절대(絕對)(0.22%), 완전(完全)(0.21%), 직접(直接)(0.19%), 어차피(於此彼)(0.19%), 평생(平生)

12) 한국어 준구어 말뭉치에서는 고유어 계통의 부사가 611개, 한자어 계통의 부사가 93개, “고유어+한자어/한자어+고유어” 계통의 부사가 115개 출현하였는데 지면의 제한으로 여기서는 앞 50개만 제시하기로 한다.

어원적 분류	부사
	(0.15%), 역시(亦是)(0.13%), 무지(無智)(0.12%), 물론(勿論)(0.11%), 현재(現在)(0.11%), 항상(恒常)(0.11%), 전부(全部)(0.1%), 무조건(無條件)(0.1%), 결국(結局)(0.09%), 대체(大體)(0.09%), 방금(方今)(0.09%), 당연(當然)(0.07%), 대충(←大總)(0.07%), 분명(分明)(0.07%), 점점(漸漸)(0.07%), 매일(每日)(0.06%), 만약(萬若)(0.05%), 당분간(當分間)(0.05%), 약간(若干)(0.04%), 과연(果然)(0.04%), 이왕(已往)(0.04%), 우선(于先)(0.03%), 조만간(早晚間)(0.03%), 하여간(何如間)(0.03%), 하필(何必)(0.03%), 각자(各自)(0.02%), 즉(卽)(0.02%), 시방(時方)(0.02%), 심지어(甚至於)(0.02%), 영(永)(0.02%), 매번(每番)(0.01%), 즉시(卽時)(0.01%), 최근(最近)(0.01%), 대개(大觀)(0.01%).
"고유어+한자어/한자어+고유어" 계통	진짜(眞—)(2.58%), 정말(正—)(1.62%), 한번(一番)(0.9%), 만날(萬—)(0.37%), 열심히(熱心—)(0.26%), 안녕히(安寧—)(0.21%), 별로(別—)(0.16%), 솔직히(率直—)(0.15%), 완전히(完全—)(0.15%), 하여튼(何如—)(0.15%), 진짜로(眞——)(0.15%), 당연히(當然—)(0.1%), 더이상(—以上)(0.1%), 분명히(分明—)(0.1%), 영원히(永遠—)(0.09%), 굉장히(宏壯—)(0.08%), 정말로(正——)(0.08%), 확실히(確實—)(0.07%), 절대로(絕對—)(0.07%), 도저히(到底—)(0.07%), 감히(敢—)(0.06%), 전혀(全—)(0.06%), 특별히(特別—)(0.05%), 충분히(充分—)(0.05%), 특히(特—)(0.05%), 상당히(相當—)(0.05%), 자세히(仔細—)(0.04%), 실은(實—)(0.04%), 적당히(適當—)(0.04%), 무사히(無事—)(0.03%), 조심히(操心—)(0.03%), 우연히(偶然—)(0.03%), 정확히(精確—)(0.03%), 실제로(實際—)(0.02%), 일일이(——)(0.02%), 편히(便—)(0.02%), 하필이면(何必——)(0.02%), 혹은(或—)(0.02%), 번번이(番番—)(0.01%), 여전히(如前—)(0.01%), 주로(主—)(0.01%), 철저히(徹底—)(0.01%), 행여(幸—)(0.01%), 간신히(艱辛—)(0.01%), 고로(故—)(0.01%), 누누이(纍纍—)(0.01%), 다행히(多幸—)(0.01%), 신속히(迅速—)(0.01%), 이왕이면(已往——)(0.01%), 정신없이(精神——)(0.01%).

연구자는 31편의 영화와 4편의 드라마에서의 부사의 어원적 범주별 출현율을 토대로 95%의 신뢰수준(유의수준 $\alpha=0.05$)에서 각 범주들의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이들 각각의 수치들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어 준구어에서 부사의 어원적 범주별 출현율의 신뢰구간

범주	α	표준편차	표본수 (n)	함수CONFIDEN CE. NORM의 계산결과 (%)	표본 평균치 (%)	신뢰구간 (%)
고유어	0.05	0.028514	35	0.94	82.07	83.02-81.13
한자어		0.023713		0.79	9.58	10.36-8.79
고+한/한+고		0.015152		0.50	8.35	8.85-7.85

4. 한국어 듣기 교재에 대한 검증

연구자는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들이 부사의 범주별 사용 측면에서 한국어 준구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8종의 듣기 교재에서 출현한 부사의 범주별 출현율을 계산한 다음 이를 '3.1'에서 제시했던 신뢰구간들과 비교해 보았다.

4.1. 부사의 통사-의미적 범주별 특징에 대한 검증

총 51, 678어절의 한국어 듣기 교재 말뭉치에서 출현한 부사는 모두 343개인데 총 5, 959회 출현해 평균 17.37회 중복 출현하였다. 이들 부사를 범주별로 그 출현율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³⁾

[표 5] 한국어 듣기 교재에서 출현한 부사의 통사-의미적 분류

통사적 분류	의미적 분류	부사
문장 부사	서법 부사	왜(1.49%), 혹시(或是)(0.52%), 특히(特—)(0.45%), 별로(別—)(0.35%), 사실(事實)(0.35%), 아마(0.29%), 또한(0.22%), 물론(勿論)(0.18%),

13) 한국어 듣기 교재 말뭉치에서는 모두 139개의 양태부사가 출현하였는데 지면의 제한으로 여기서는 앞 50개만 제시하기로 한다.

통사적 분류	의미적 분류	부사
		결국(結局)(0.13%), 실제로(實際—)(0.12%), 역시(亦是)(0.12%), 도대체(都大體)(0.1%), 절대로(絕對—)(0.08%), 게다가(0.07%), 분명히(分明—)(0.07%), 아무래도(0.07%), 어쨌든(0.07%), 대체(大體)(0.05%), 만약(萬若)(0.05%), 실은(實—)(0.05%), 아무튼(0.05%), 아예(0.05%), 전혀(全—)(0.05%), 절대(絕對)(0.05%), 도저히(到底—)(0.03%), 비록(0.03%), 설마(0.03%), 어쩌면(0.03%), 적어도(0.03%), 하여튼(何如—)(0.03%), 결코(決—)(0.02%), 그나저나(0.02%), 도무지(0.02%), 또다시(0.02%), 보나마나(0.02%), 분명(分明)(0.02%), 심지어(甚至於)(0.02%), 아무쪼록(0.02%), 어쩌서(0.02%), 어차피(於此彼)(0.02%), 이른바(0.02%), 제발(0.02%), 차라리(0.02%), 통(0.02%), 하마터면(0.02%), 하여간(何如間)(0.02%).
	접속 부사	그럼(3.93%), 그런데(3.49%), 그리고(2.48%), 그래서(1.98%), 그러면(1.36%), 하지만(0.74%), 그래도(0.67%), 그렇지만(0.42%), 그러니까(0.23%), 오히려(0.13%), 또는(0.1%), 혹은(或—)(0.1%), 하긴(0.08%), 그러니(0.05%), 그러다(0.05%), 그러게(0.03%), 그러면서(0.03%), 더구나(0.03%), 밋(0.03%), 왜냐하면(0.03%), 즉(卽)(0.03%), 그래야(0.02%), 그러나(0.02%), 그러므로(0.02%), 다만(0.02%), 단(卽)(0.02%), 더군다나(0.02%), 더욱이(0.02%).
성 분 부 사	시간 부사	지금(至今)(2.15%), 오늘(1.95%), 아직(1.23%), 내일(來日)(1.11%), 이제(0.91%), 먼저(0.86%), 어서(0.84%), 어제(0.81%), 언제(0.77%), 벌써(0.44%), 오래(0.4%), 잠깐(0.4%), 갑자기(0.39%), 미리(0.22%), 곧(0.18%), 금방(今方)(0.18%), 우선(于先)(0.18%), 잠시(暫時)(0.17%), 아까(0.15%), 일찍(0.15%), 현재(現在)(0.15%), 당장(當場)(0.12%), 마침(0.1%), 언제나(0.08%), 언제든지(0.08%), 인제(0.08%), 늘(0.07%), 얼른(0.07%), 요새(0.07%), 이미(0.07%), 곧바로(0.05%), 내내(0.05%), 막(0.05%), 이따(0.05%), 당분간(當分間)(0.03%), 드디어(0.03%), 마침내(0.03%), 방금(方今)(0.03%), 어젯밤(0.03%), 최근(最近)(0.03%), 한참(0.03%), 그간(一間)(0.02%), 다음날(0.02%), 모래(0.02%), 엇그제(0.02%), 오래오래(0.02%), 즉시(卽時)(0.02%), 진작(0.02%), 한창(0.02%).
	장소 부사	여기(1.46%), 거기(0.23%), 저기(0.18%), 가까이(0.05%), 이리(0.05%), 그리로(0.03%), 저리(0.02%).
	양태 부사	잘(4.93%), 많이(4.18%), 어떻게(3.21%), 같이(2.92%), 다(1.54%), 또(1.31%), 그렇게(1.28%), 꼭(1.28%), 모두(1.16%), 이렇게(1.04%), 함께(0.87%), 다시(0.82%), 얼마나(0.82%), 열심히(熱心—)(0.82%), 바로(0.69%), 보통(普通)(0.62%), 그냥(0.55%), 빨리(0.55%), 자주

통사적 분류	의미적 분류	부사
		(0.52%), 한번(一番)(0.49%), 안녕히(安寧—)(0.42%), 계속(繼續)(0.35%), 가끔(0.34%), 직접(直接)(0.3%), 주로(主—)(0.29%), 항상(恒常)(0.29%), 매일(每日)(0.22%), 거의(0.2%), 아무리(0.2%), 특별히(特別—)(0.2%), 없이(0.18%), 그대로(0.17%), 새로(0.17%), 제대로(0.17%), 서로(0.15%), 당연(當然)(0.13%), 스스로(0.12%), 일단(一旦)(0.12%), 자세히(仔細—)(0.12%), 달리(0.1%), 당연히(當然—)(0.1%), 살짝(0.1%), 따로(0.08%), 똑바로(0.08%), 조금씩(0.08%), 좀더(0.08%), 똑같이(0.07%), 마음껏(0.07%), 매달(每一—)(0.07%), 자꾸(0.07%).
	정도 부사	좀(3.26%), 정말(正—)(2.62%), 아주(2.23%), 너무(1.88%), 더(1.85%), 참(0.99%), 가장(0.89%), 조금(0.84%), 제일(第一—)(0.6%), 굉장히(宏壯—)(0.25%), 원래(原來)(0.25%), 훨씬(0.22%), 점점(漸漸)(0.2%), 무척(0.18%), 진짜(眞—)(0.15%), 더욱(0.1%), 매우(0.1%), 덜(0.08%), 완전히(完全—)(0.08%), 워낙(0.08%), 꽤(0.07%), 상당히(相當—)(0.07%), 확실히(確實—)(0.07%), 정말로(正——)(0.05%), 겨우(0.03%), 무지(無智)(0.03%), 본래(本來)(0.03%), 엄청(0.03%), 여전히(如前—)(0.03%), 영(永)(0.03%), 펍(0.03%), 하도(0.03%), 더더욱(0.02%), 더욱더(0.02%), 더이상(—以上)(0.02%), 웬지(0.02%), 은근히(殷懃—)(0.02%), 제법(0.02%), 진정(眞正)(0.02%), 티없이(0.02%).
	상징 부사	푹(0.12%), 짝(0.08%), 확(0.07%), 꼼꼼(0.05%), 까딱(0.02%), 깜빡(0.02%), 깜짝(0.02%), 꼬르륵(0.02%), 꼬박꼬박(0.02%), 꺾(0.02%), 노릇노릇(0.02%), 달랑(0.02%), 덜렁(0.02%), 딱(0.02%), 또박또박(0.02%), 푹(0.02%), 뚱뚱(0.02%), 물씬(0.02%), 부쩍(0.02%), 불쑥(0.02%), 사르르(0.02%), 살살(0.02%), 쓱(0.02%), 왈각(0.02%), 주르륵(0.02%), 주춤(0.02%), 짹(0.02%), 텅(0.02%), 퉁퉁(0.02%), 평평(0.02%), 호리호리(0.02%).
	부정 부사	안(3.52%), 못(2.47%), 아니(0.02%).

먼저 듣기 교재 내 부사의 통사-의미적 범주별 출현율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한국어 듣기 교재 내 부사의 통사-의미적 범주별 출현율

범주		교1 (%)	교2 (%)	교3 (%)	교4 (%)	교5 (%)	교6 (%)	교7 (%)	교8 (%)
문장	서법	5.98	3.19	1.45	3.55	2.92	6.65	3.53	7.66
	접속	13.06	14.36	9.82	22.93	16.98	16.85	14.42	17.68
성분	시간	15.18	22.87	18.91	16.31	16.73	12.58	18.27	12.90
	장소	3.23	2.66	2.18	4.49	1.39	1.66	1.60	0.83
	양태	36.27	33.51	42.18	30.26	36.12	40.71	34.29	36.95
	정도	17.70	21.28	14.55	16.78	18.12	16.78	23.08	16.77
	상징	1.18	0.00	0.00	0.24	1.39	0.72	0.00	0.68
	부정	7.40	2.13	10.91	5.44	6.34	4.05	4.81	6.53

다음 연구자는 [표 6]의 각 항 수치들을 [표 2] 중의 신뢰구간과 비교하여 이 수치들이 각각의 신뢰구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Excel(2010)의 IF 함수를 사용해 이들 수치가 신뢰상한을 초과하면 ‘↑’로, 신뢰하한에 못 미치면 ‘↓’로, 신뢰구간에 포함되면 ‘—’로 표시하였다. 비교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부사의 통사-의미적 범주별 측면에서 한국어 듣기 교재와 준구어의 비교

범주		교1	교2	교3	교4	교5	교6	교7	교8
문장	서법	↓	↓	↓	↓	↓	↓	↓	↓
	접속	↑	↑	↑	↑	↑	↑	↑	↑
성분	시간	↑	↑	↑	↑	↑	↓	↑	↓
	장소	↓	↓	↓	—	↓	↓	↓	↓
	양태	↑	—	↑	↓	↑	↑	—	↑
	정도	—	↑	↓	—	—	—	↑	—
	상징	↓	↓	↓	↓	↓	↓	↓	↓
	부정	↓	↓	—	↓	↓	↓	↓	↓

[표 7]의 비교 결과를 보면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문장부사 중의 서법부사, 성분부사 중의 장소부사, 상징부사, 부정부사는 모든 교

재 또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그 출현율이 신뢰하한에 미치지 못하였고 문장부사 중의 접속부사, 성분부사 중의 시간부사, 양태부사는 모든 교재 또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그 출현율이 신뢰상한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규칙성은 부사의 범주별 사용에서의 차이가 단순한 우연적인 현상이 아님을 설명해 준다.

4.2. 부사의 어원적 특징에 대한 검증

위의 343개의 부사를 다시 어원적으로 고유어 계통, 한자어 계통, “고유어+한자어/한자어+고유어” 계통으로 나누고 그 출현율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⁴⁾

[표 8] 한국어 듣기 교재에서 출현한 부사의 어원적 분류

어원적 분류	부사
고유어 계통	잡(4.93%), 많이(4.18%), 그림(3.93%), 안(3.52%), 그런데(3.49%), 좀(3.26%), 어떻게(3.21%), 같이(2.92%), 그리고(2.48%), 못(2.47%), 아주(2.23%), 그래서(1.98%), 오늘(1.95%), 너무(1.88%), 더(1.85%), 다(1.54%), 왜(1.49%), 여기(1.46%), 그러면(1.36%), 또(1.31%), 그렇게(1.28%), 꼭(1.28%), 아직(1.23%), 모두(1.16%), 이렇게(1.04%), 참(0.99%), 이제(0.91%), 가장(0.89%), 함께(0.87%), 먼저(0.86%), 어서(0.84%), 조금(0.84%), 다시(0.82%), 얼마나(0.82%), 어제(0.81%), 언제(0.77%), 하지만(0.74%), 바로(0.69%), 그래도(0.67%), 그냥(0.55%), 빨리(0.55%), 자주(0.52%), 벌써(0.44%), 그렇지만(0.42%), 오래(0.4%), 잠깐(0.4%), 갑자기(0.39%), 가끔(0.34%), 아마(0.29%), 거기(0.23%).
한자어 계통	지금(至今)(2.15%), 내일(來日)(1.11%), 보통(普通)(0.62%), 제일(第一)(0.6%), 혹시(或是)(0.52%), 계속(繼續)(0.35%), 사실(事實)(0.35%), 직접(直接)(0.3%), 항상(恒常)(0.29%), 원래(原來)(0.25%), 매일(每日)(0.22%), 점점(漸漸)(0.2%), 금방(今方)(0.18%), 물론(勿論)(0.18%), 우

14) 한국어 듣기 교재 말뭉치에서는 고유어 계통의 부사가 235개, 한자어 계통의 부사가 55개, “고유어+한자어/한자어+고유어” 계통의 부사가 53개 출현하였는데 지면의 제한으로 여기서는 앞 50개만 제시하기로 한다.

어원적 분류	부사
	선(于先)(0.18%), 잠시(暫時)(0.17%), 현재(現在)(0.15%), 결국(結局)(0.13%), 당연(當然)(0.13%), 당장(當場)(0.12%), 역시(亦是)(0.12%), 일단(一旦) (0.12%), 도대체(都大體)(0.1%), 단지(但只)(0.05%), 대체(大體)(0.05%), 만약(萬若)(0.05%), 약간(若干)(0.05%), 전부(全部)(0.05%), 절대(絕對) (0.05%), 종종(種種)(0.05%), 당분간(當分間)(0.03%), 대개(大槪)(0.03%), 매년(每年)(0.03%), 무려(無慮)(0.03%), 무지(無智)(0.03%), 방금(方今) (0.03%), 본래(本來)(0.03%), 영(永)(0.03%), 즉(卽)(0.03%), 최근(最近) (0.03%), 각각(各各)(0.02%), 각자(各自)(0.02%), 단(但)(0.02%), 대 강(大綱)(0.02%), 매번(每番)(0.02%), 매일매일(每日每日)(0.02%), 매 주(每週)(0.02%), 무조건(無條件)(0.02%), 분명(分明)(0.02%), 심지어 (甚至於)(0.02%).
“고유어+한 자어/한자어+ 고유어” 계통	정말(正—)(2.62%), 열심히(熱心—)(0.82%), 한번(一番)(0.49%), 특히 (特—)(0.45%), 안녕히(安寧—)(0.42%), 별로(別—)(0.35%), 주로(主 —)(0.29%), 굉장히(宏壯—)(0.25%), 특별히(特別—)(0.2%), 진짜(眞 —)(0.15%), 실제로(實際—)(0.12%), 자세히(仔細—)(0.12%), 당연히 (當然—)(0.1%), 혹은(或—)(0.1%), 완전히(完全—)(0.08%), 절대로(絶 對—)(0.08%), 매달(每—)(0.07%), 분명히(分明—)(0.07%), 상당히(相 當—)(0.07%), 충분히(充分—)(0.07%), 확실히(確實—)(0.07%), 다행 히(多幸—)(0.05%), 실은(實—)(0.05%), 전혀(全—)(0.05%), 정말로(正 —)(0.05%), 도저히(到底—)(0.03%), 무사히(無事—)(0.03%), 서서 히(徐徐—)(0.03%), 솔직히(率直—)(0.03%), 여전히(如前—)(0.03%), 적당히(適當—)(0.03%), 정확히(精確—)(0.03%), 하여튼(何如—)(0.03%), 간단히(簡單—)(0.02%), 건강히(健康—)(0.02%), 결코(決—)(0.02%), 그간(一間)(0.02%), 급격히(急激—)(0.02%), 기왕이면(既往—)(0.02%), 냉정히(冷靜—)(0.02%), 대체로(大體—)(0.02%), 더이상(—以上)(0.02%), 만날(萬—)(0.02%), 번번이(番番—)(0.02%), 변함없이(變——)(0.02%), 소중히(所重—)(0.02%), 수시로(隨時—)(0.02%), 우연히(偶然—)(0.02%), 원만히(圓滿—)(0.02%), 은근히(殷勤—)(0.02%).

먼저 듣기 교재 내 부사의 어원적 범주별 출현율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한국어 듣기 교재 내 부사의 어원적 범주별 출현율

범주	교1 (%)	교2 (%)	교3 (%)	교4 (%)	교5 (%)	교6 (%)	교7 (%)	교8 (%)
고유어	81.59	82.98	80.00	85.11	85.42	82.86	80.77	82.25
한자어	9.52	10.64	11.64	8.98	8.87	9.26	12.82	8.88
고+한/한+고	8.89	6.38	8.36	5.91	5.70	7.88	6.41	8.88

다음 [표 9]의 각 항 수치들과 [표 4] 중의 신뢰구간과의 비교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부사의 어원적 범주별 측면에서 한국어 듣기 교재와 준구어의 비교

범주	교1	교2	교3	교4	교5	교6	교7	교8
고유어	—	—	↓	↑	↑	—	↓	—
한자어	—	↑	↑	—	—	—	↑	—
고+한/한+고	↑	↓	—	↓	↓	—	↓	↑

[표 10]의 비교 결과를 보면 부사의 어원적 범주별 사용 측면에서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들에서 뚜렷한 규칙을 발견하기 힘들다. 약간한 차이가 있다면 한자어 계통의 부사의 사용에서 한국어 교재들이 그 사용률이 좀 높고 “고유어+한자어/한자어+고유어” 계통의 부사의 사용에서 한국어 교재들이 그 사용률이 좀 낮다.

5. 결론

‘4.1.’과 ‘4.2.’의 검증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향후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 집필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사의 통사-의미적 범주별 사용에서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

대화문들은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문장부사 중의 서법부사, 성분부사 중의 장소부사, 상징부사, 부정부사는 모든 교재 또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그 출현율이 신뢰하한에 미치지 못하였고 문장부사 중의 접속부사, 성분부사 중의 시간부사, 양태부사는 모든 교재 또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그 출현율이 신뢰상한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 집필 시 문장부사 중의 서법부사, 성분부사 중의 장소부사, 상징부사, 부정부사는 그 사용률을 증가해야 하고 문장부사 중의 접속부사, 성분부사 중의 시간부사, 양태부사는 그 사용률을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부사들의 사용에서도 일부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분부사 중의 부정부사를 보면 한국어 준구어에서는 의도부정 “안”의 사용률이 능력부정 “못”의 사용률의 거의 3.5배 정도 되지만 한국어 듣기 교재에서는 의도부정 “안”의 사용률이 능력부정 “못”의 사용률의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어를 금방 배우기 시작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능력부정 “못”을 많이 사용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장부사 중의 접속부사를 보면 한국어 듣기 교재에서 “그런데, 그럼, 그리고,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 하지만, 그렇지만” 등의 접속부사들은 한국어 준구어보다 그 출현율이 훨씬 높으며 준구어에서는 한 번도 출현하지 않은 “그러므로, 더군다나, 더욱이”와 같은 접속부사들도 일부 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실제 대화에서는 대화 상황에 근거하여 접속부사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 듣기 교재들이 접속부사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듣기 교재 내 대화문들이 대화 진행 상황에 중심을 뒀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면 것처럼 문장 간의 연결에 초점을 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제시대화문 집필 시 규범적인 문장을 제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국어 구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화 상황에 따라 접속부사가 생략되어도 무방한 경우에는 일부 생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부사의 어원적 범주별 사용에서 한국어 듣기 교재들은 한자어 계통의 부사와 “고유어+한자어/한자어+고유어” 계통의 부사의 사용에서 한국어 준구어와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한자어 계통의 부사 사용에서 총 3종의 교재가 신뢰상한을 초과하였고 “고유어+한자어/한자어+고유어” 계통의 부사 사용에서 총 4종의 교재가 그 사용률이 신뢰하한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 집필 시 한자어 계통의 부사의 사용은 좀 줄이고 “고유어+한자어/한자어+고유어” 계통의 부사 사용은 약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부사의 사용에서도 일부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자어 계통의 부사인 “혹시(或是), 내일(來日), 제일(第一), 계속(繼續), 직접(直接), 물론(勿論), 항상(恒常), 현재(現在), 결국(結局), 당연(當然), 점점(漸漸), 매일(每日), 우선(于先), 보통(普通)” 등은 한국어 듣기 교재에서의 사용률이 한국어 준구어보다 훨씬 높고 “고유어+한자어/한자어+고유어” 계통의 부사 “진짜(眞—), 한번(一番), 만날(萬—), 솔직히(率直—), 완전히(完全—), 진짜로(眞——), 하여튼(何如—), 더이상(—以上), 분명히(分明—), 영원히(永遠—), 정말로(正——), 도저히(到底—)” 등은 한국어 듣기 교재에서의 사용률이 한국어 준구어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향후 교재 집필진들은 한국어 준구어에서의 각 부사들의 사용률을 일정 부분 참고하여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들을 집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자 료】

(1) 한국어 준구어 말뭉치

- 영화01: 『과속스캔들』, 2008.
영화02: 『괴물』, 2006.
영화03: 『내 머리 속의 지우개』, 2004.
영화04: 『동갑내기 과외하기』, 2003.
영화05: 『미녀는 괴로워』, 2006.
영화06: 『아기와 나』, 2008.
영화07: 『엽기적인 그녀』, 2001.
영화08: 『영화는 영화다』, 2008.
영화09: 『칠급공무원』, 2009.
영화10: 『클래식』, 2003.
영화11: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2004.
영화12: 『댄서의 순정』, 2005.
영화13: 『마음이』, 2006.
영화14: 『원탁의 천사』, 2006.
영화15: 『우아한 세계』, 2007.
영화16: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2005.
영화17: 『작업의 정석』, 2005.
영화18: 『두사부일체』, 2001.
영화19: 『잠복근무』, 2005.
영화20: 『여선생 대 여제자』, 2004.
영화21: 『그놈 목소리』, 2007.
영화22: 『오, 해피데이』, 2003.
영화23: 『복면달호』, 2007.
영화24: 『아들』, 2007.
영화25: 『내 생애 최악의 남자』, 2007.
영화26: 『공공의 적2』, 2005.

- 영화27: 『1번가의 기적』, 2007.
영화28: 『피아노 치는 대통령』, 2002.
영화29: 『비열한 거리』, 2006.
영화30: 『미스터 주부 퀴즈왕』, 2005.
영화31: 『박수 칠 때 떠나라』, 2005.
드라마01: 『마이걸』, 2005. 12~2006. 02.
드라마02: 『미안하다 사랑한다』, 2004. 11~2004. 12.
드라마03: 『아이리스』, 2009. 10~2009. 12.
드라마04: 『폴하우스』, 2004. 07~2004. 09.

(2) 한국어 듣기 교재 말뭉치

듣기교재(1)

- 何彤梅·胡翠月(2010), 『韩国语视听说教程(一)』,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李玉华(2010), 『韩国语视听说教程(二)』,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潘燕梅(2010), 『韩国语视听说教程(三)』,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陈艳平(2010), 『韩国语视听说教程(四)』,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듣기교재(2)

- 方锦淑·金星姬(2010), 『韩语听说(1)』, 北京: 中央广播电视大学出版社.
金星姬(2010), 『韩语听说(2)』, 北京: 中央广播电视大学出版社.

듣기교재(3)

- 李相淑·沈潤姬·金有香(2011a), 『大家的韩国语听力(初级1)』, 大连: 大连出版社.
_____ (2011b), 『大家的韩国语听力(初级2)』, 大连: 大连出版社.

듣기교재(4)

- 满秀娥(2009), 『韩语情景听力』, 上海: 世界图书出版公司.

듣기교재(5)

- 李成道外3人(2005), 『韩语听力教程(初级1)』,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朴银淑外3人(2006a), 『韩语听力教程(初级2)』,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_____ (2006b), 『韩语听力教程(中级1)』,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高红姬外3人(2007), 『韩语听力教程(中级2)』,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듣기교재(6)

- 尹敬爰·权赫哲(2006), 『韩国语听力教程(初级-下)』, 大连: 大连理工大学出版社.
_____ (2005), 『韩国语听力教程(初级-上)』, 大连: 大连理工大学出版社.

- 尹敬爰(2007), 『韩国语听力教程(中级一下)』, 大连: 大连理工大学出版社.
- _____(2006), 『韩国语听力教程(中级一上)』, 大连: 大连理工大学出版社.
- 듣기교재(7)
- 杨磊(2007), 『新基础韩国语听力(下册)』,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_____(2006), 『新基础韩国语听力(上册)』,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듣기교재(8)
- 崔顺姬·蔡柯欣译(2008a), 『新视线韩国语听说教程1-初级(上)』,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_____(2008b), 『新视线韩国语听说教程2-初级(下)』,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_____(2008c), 『新视线韩国语听说教程3-中级(上)』,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崔顺姬·乔文译(2009), 『新视线韩国语听说教程4-中级(下)』,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崔顺姬·吴岚译(2010), 『新视线韩国语听说教程5-高级(上)』,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崔顺姬·乔乐译(2011), 『新视线韩国语听说教程6-高级(下)』,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논 제】

- 강범모(2003), 『언어,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노성화(2015a), 「중국의 한국어 듣기 교재 제시대화문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수사의 쓰임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_____(2015b), 「한국어 준구어와 한국어 듣기 교재 제시대화문의 비교 연구-의존명사의 쓰임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3, 한국국어교육학회.
- _____(2014), 『한국어 준구어 형태론적 연구』, 서울: 박이정출판사.
- _____(2012), 「중국 국내 한국어 듣기 교재 연구-제시대화문의 실질형태소 범주별 쓰임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노성화·왕전초·양취평(2013), 「중국 국내 한국어 듣기 교재의 제시대화문 연

구-대명사 쓰임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9, 연세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서상규·구현정(2005), 『한국어 구어 연구(2)』, 서울: 한국문화사.

_____ (2002), 『한국어 구어 연구(1)』, 서울: 한국문화사.

손남익(1995), 『국어부사연구』, 서울: 박이정출판사.

이상억(2006), 『서울말 진경 구어 연구』, 서울: 박이정출판사.

한국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립국어원(2010), 『21세기 세종계획(1)』, 서울: 한국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립국어원.

韩宝成(2009), 『外語教學科研中的統計方法』,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韩兆洲(2011), 『统计学原理(第七版)』, 广州: 暨南大学出版社.

刘龙根·苗瑞琴(2011), 『外語聽力理論與實踐』,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원고 접수일: 2015년 5월 7일

심사 완료일: 2015년 7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5년 7월 30일

ABSTRACT

The Research of Korean Listening Textbooks' Organizing Dialogues in China
from a Computational Linguistics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Adverb

Lu, Xing-Hua*

Compared with the Korean quasi-oral system, there are certain differences in the use of adverbs existing in the dialogue texts of Korean listening materials published in China. In order to reveal the cause, the author, using the interval reasoning method of statistics, from two aspects, aims to discuss the adverbs in hearing teaching materials. According to grammatical features, the author firstly divides adverbs into two parts: sentence adverbs and component adverbs. Sentence adverbs can be classified into modality adverbs and conjunctive adverbs. And component adverbs can be classified into adverbs of time, adverbs of place, adverbs of manner, adverbs of degree, onomatopoeia adverbs, negative adverbs and so on. Last, adverbs are divided into the inherent word system, Chinese word system, and "inherent+Chinese" word system according to the origins. All these adverbs are compared with the Korean quasi-oral system, respectively. At

* College of Korean Studies, YanBian University of China · LuoYang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

las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comparison, some suggestions are presented concerning the writing of demonstrative dialogues of Korean listening materials.